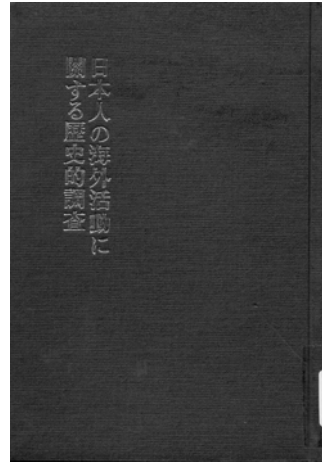


50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

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

1985년 / 대장성(大藏省) / 총 35권 / 14,20-01 대71일 1985



이 기록은 19세기 후반부터 2차대전 패전까지의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 기록이다. 1945년 8월에 패전한 일본은 본국(일본)으로 귀환한 각 총독부 공무원들을 집합시켜, 그들이 지참한 기록과 주체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식민통치에 대한 일체의 사실을 기록케 한 것이다.

이 작업의 주체는 당시 일본 대장성(大藏省, 재무부) 관리국이었다. 대상은 대만, 조선, 만주(동북 3성), 요동을 비롯하여 2차대전 때 일본군이 점령한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미얀마 등과 남방의 인도네시아 등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이다.

총 3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~11권까지가 조선에 관한 기록이다. 이들은 극비에 200질 한정판을 출간했는데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두 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량 소각해 버렸다. 남은 두 질 중 한 질은 재무부 관리국에 비치하고, 다른 한 질은 동경대학 도서관에 비치했다.

이 사실을 안 필자가 1970년대 후반에 당시 田中(다나카) 수상의 참모였던 국토청 모 국장에게 부탁했더니, 이 문서는 복사가 불가하며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.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당시 동경대학 박사과정에 있던 박○○에게 군자금을 주어 관리직에게 부탁하지 말고 말단 사서

담당자를 구워삶으라고 했고, 약 한 달 후에 박○○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 왔다. “목적 달성했으니 빨리 사람을 보내라”는 것이었다. 그러는 그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.

그때만 해도 일본비자 한 번 얻기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에 “DHL로 보내라, 발송인 주소와 성명은 가짜로 하고” 했더니 만약 이 일이 들통 나면 자기는 강제출국 당한다는 것이었다. 며칠 후 DHL로 자료는 도착했다. 이번에는 DHL에 파견되어 있는 CIA직원이 문제였다. 일본 문자는 모르겠는데 한자로 “朝鮮(조선)”이라고 되어 있으니 북한에서 온 불온문서가 아니냐는 것이었다.

어쨌든 이 자료는 필자가 『韓國國土開發史研究(한국국토개발사연구)』를 쓸 때 정확도에는 다소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대단히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. 그후 1985년에 서울에 있는 고려서림에서 해적판으로 35권을 12권으로 출판한 일이 있다.